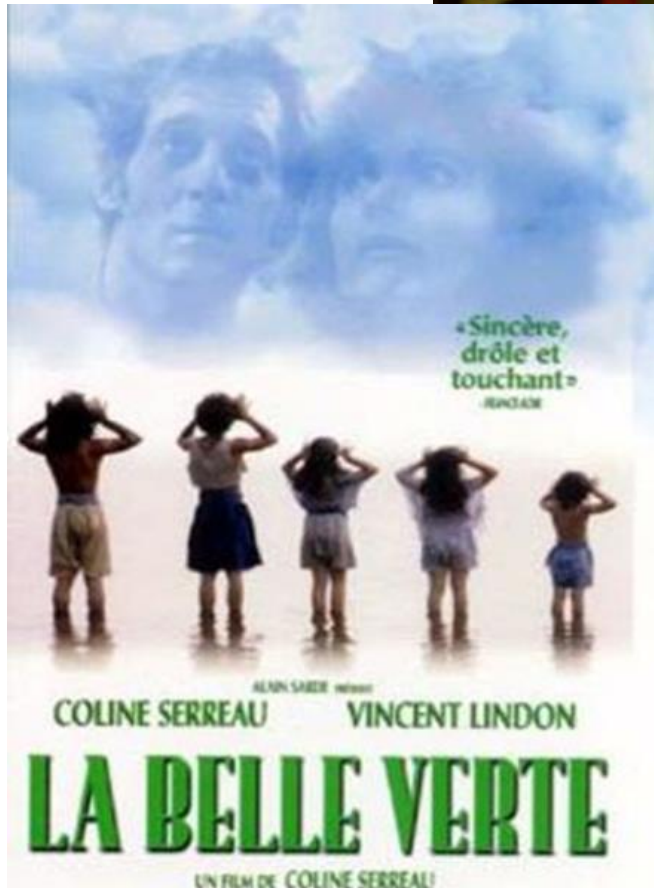


인문 치유와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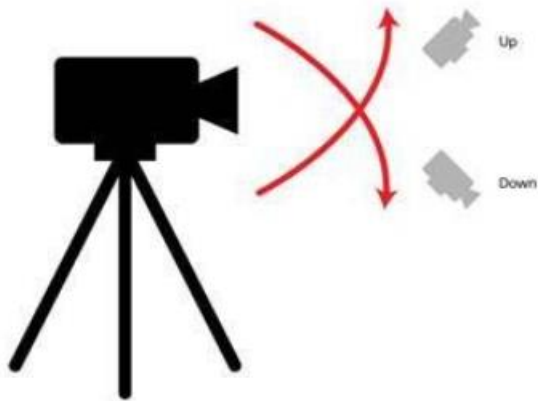
Dolly zoom (Zoom-in Track-out)



1. 고정 샷 (Fix 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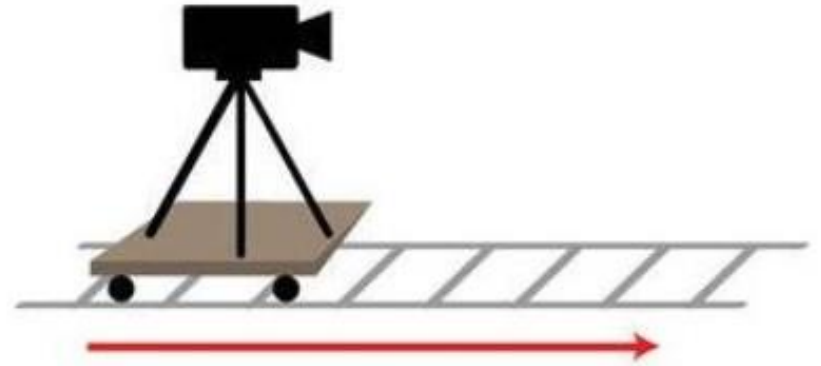


3. 틸트 (Tilt)



붐(Boom)과 차이

2. 달리 샷 (dolly shot) & 트랙킹 (tracking)



아크 (Arc)와 차이

4. 팬 (Pan)



증오심으로 살해당한 '나'를 치유하는 영화 감상을 위하여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자본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지저분함도 아니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저마다 조금씩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증오심으로 살해당한 '나' 속의 예술가이다.

영화 감상의 의미 추적하기

-영화의 기능-

상품성만을 강조한 영화와 달리, 감상의 감상으로서의 슬픈 연가로 사랑의 아픔을 달래는 음악가의 선율처럼, 평화로운 그림으로 가난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화가의 붓길처럼, 움직이는 사운드.이미지로서 영화 역시 마음의 아픔을 평화롭게 감싸고 흐른다.

인문 치유와 영화

교묘하게 영화 형식을 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작품성 높은 장편과 단편,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예에서 보듯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견지하는 영화인들의 진정성 어린 노력은 이제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영화인으로서 개인적 노력은 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수준은 사회적 건강의 척도이기에 프랑스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인문 치유

사회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하다. 사회 복지 하위 개념으로서의 가족 복지, 그 하위 개념으로서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심리 치유, 그 하위 개념으로서 문학 치유, 즉 독서 치유, 저널 치유, 글쓰기 치유, 시 치유 등 다양한 인문 치료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점점 더 확장되는 복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신적 외상, 정신적 장애와 고통을 비롯한 구준제 치유 기법의 부족으로만 가고 있다. 이 고통의 치유를 병음해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인문학을 통해 치유하는 방안도 개선되어가고 있다.

치유로서의 영화 감상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몰입하는 정신 훈련으로서의 인문. 예술 치유는 병원 치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상담 받는 대상 즉 클라이언트를 환자로 규정하는 의료 행위와는 달리, 클라이언트 자식을 진직접 인생관 세계관을 재확립하여 스스로 문제와 해결책을 찾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화 감상은 자기 주도의 치유가 아니라 지기에 훌륭한 영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신 치유를 수행하고 있다.

클레멘트 코스Clemente Course

인문 치유의 출발은 미국의 사회비평 작가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1995년 개설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학, 철학 등 인문학을 가르치는 '클레멘트 코스'였다. 가난한 계층,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적 삶'이라는 여성 수감자의 말이 동기로 작용하여 출발한 '클레멘트 코스' 수료자들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공부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그의 실험은 이미 십여 개국에서 100여 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되어 인문 치유학의 실효성을 증하고 있다.

문학 치유

문학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기 성찰적 글쓰기, 감정 표현 글쓰기는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치유 기능을 발휘하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자존감 상실, 노인복지 및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마음 치유'로서 문학 치유는 184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에는 대학에 문학치유학과가 개설됐고, 1979년에는 문학치유학회가 설립되면서 효율적 학문 체계를 갖추게 된다. 1937년 '독서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문학 치유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1945년 이후 주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치유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이후 일반인에게 폭넓게 확산되어 현재 예술 치유와의 통합 연구도 진행 중이다.

철학 치유

철학 치유는 1982년 독일의 철학자 게르트 아헨바흐 Gerd B. Achenbach가 창립한 '철학 상담'으로 출발하였다. 아헨바흐의 활동을 효시로 철학 치유에 대한 연구는 유럽 전체에 확산된 뒤 북미 지역으로 전파 되어 1982년 국제철학상담 학회가 설립됐다. 아헨바흐는 1994년 철학 상담에 관한 저서 출간으로 철학 상담을 독자적 학문 분야로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철학상담사학회는 2003년부터 철학 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 치유

인문 치유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예술 치유는 음악, 미술, 영상, 서예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영상 치유 기법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처방된 영상물을 보며 위안을 얻고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가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자기주도의 치유 효과를 창출한다. 하지만 영상 치유를 내걸고 형성된 다양한 치유 혹은 치료주제가 임상심리 치료의 경우처럼 클라이언트를 환자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작품 감상을 통한 자가 치유 능력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의 기본 정신을 느끼고 그 감동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자가 치유 기능

중요한 것은 관습적·타성적 치유가 아닌 영화가 지니는 자가 치유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 꺼안고 가야 할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느끼는 고통은 삶의 보람과 쾌락의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첫 번째 화살에 맞는 것이요, 고통의 상처를 감내하지 못하고 스러지는 것은 두 번째 화살에 다시 맞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쾌락이듯, 삶의 기쁨은 고난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영화의 빛이 어둠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塞翁之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표현처럼 삶은 항상 불행과 행복,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 어둠과 빛의 사이클로 구성된다. 극장의 어둠 속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듯이, 삶 또한 그 고통의 어둠 속에서만 빛을 보고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구한다.

규칙적 명멸효과와 가현운동

영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영사기 광원의
빛을 규칙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사기
나 프리즘이 스크린에 영사되고 다음 프레임을 투
사시키기 위해 필름을 끌어내릴 때 블레이드 셔터가
빛을 차단하여 1/48분의 1초 동안 스크린은 어둠에
싸여 있다. 이 어둠과 빛의 교차가 1초에 48번 반복
된다. 즉 초당 24프레임이란 초당 48번 이미지와 어
둠이 교차함을 의미한다. 이미지의 움직임은 규칙적
인 빛의 차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루미에르
가 발명한 영사기 원리로서 규칙적 명멸효과라 한다.

규칙적 명멸효과와 가현운동

영화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는 규칙적 명멸효과와 가현운동(네온사인 효과)에 의한 것이다. 학자들도 이보다 더 명확한 원칙을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당시 빛의 차단은 V자형 디스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극장을 찾는 우리는 어둠 속에 끊임없이 교차하는 어둠과 빛의 사이에 앉아 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관람료를 지불하고 감상하는 영미 상영 시간 동안 관객은 그 관람료 절반 이상을 영화 미시간의 절반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시간의 절반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눈이 1/10초보다 빠른 움직임을 포착하여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둠 없는 삶은 없다

삶 역시 한 편의 영화이다.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삶의 어둠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삶의 반은 어둠이요 나머지 반은 빛이다. 어둠 없는 삶은 없다. 영화 속 인물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어 스스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영화는 자가 치유를 도와주는 안내자이다.

자신만의 감동으로 정화, 용기 내는 감상문 쓰기

인문 치유의 원리가 그러하듯 영화 치유 역시
독서 치유에서 출발하였다. 진정한 독서와 영화
감상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고, 정리하여 재
구성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해준다. 더욱이
영화 치유와 독서 치유는 창의적이면서도 비용
이 저렴한 치유 방법이다. 읽기·느끼기·글쓰기
3단계를 거치며 스스로 감동받고 정화하며 용
기를 내어 트라우마를 치유해가듯이, **보기·느끼
기·글쓰기**(감상일지)의 세 단계를 거치는 영화
치유 역시 스스로 감동받고 정화하여 용기를 북
돋우며 스스로를 치유한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대화

시간성이나 생동감 면에서 영화 치유법은 좀 더
시일행동에 옮기기 쉬우며 생동적이며 직설적이기
때문이다. 감상자들에게 친근하고 솔직한 대화
를 유도함으로써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도 쉽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제점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려는 클라이언트도 사실 혼혹은 직계 가족을
의 자살, 원한, 동성애 등에 관한 내적 갈등을
겪는 영화 속 인물과 자신을 동화시키면서 내면
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대화에 응하게 되기 때
문이다. 다른 어떤 형태의 예술 치료보다 영화
치유의 반응도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다.

스스로 자신을 돕기 self-help

영화 치유의 가능성을 제안한 <영화 처방전 The Motion Picture Prescription>(1995)의 저자 개리 솔로몬 Gary Solomon은 영화를 '스스로 자신을 돕기 self-help'로, 영화 치유의 특성을 일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돕는 '자가요법 self-therapy'으로 규정한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듯 영화를 통해 자기 스스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을 스스로 구하게 하는 것이다.

'관습적 지금의 나'로부터의 해방 나의 관습적 사유로부터 해방 시기



“기회는 Tour de France 같은 것,
오래 기다리지만 한 순간에 지나간다”

